



가독

“한국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박석분

부산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지난 4월 15일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와 부산NCC, 부산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등 6개 단체 공동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 행사를 열었다. 1945년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이기열 선생을 모시고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현황과 요구를 경청하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및 후손회 회원들도 동참했다.

이기열 선생의 부모님은 고향 함천에서 “살기 어려우니, 일본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로시마로 동원되어 가셨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 가니 듣던 내용과는 너무 달라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기열 선생은 태어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 피폭되었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일곱 번이나 수술을 받을 정도로 평생 피부병을 비롯한 온갖 병마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피폭자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던 일이다. 피폭 후유증은 유전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원폭을 맞았다고 하면 기피한다. 원폭 피해자라고 하면 그의 자녀를 며느리나 사위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미국이 원폭을 투하해서 해방된 것”이라고 말할 때면 곤혹스럽기도 하다.

이기열 선생은 전범국가 국민이 아닌 한국인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와 피폭되었기 때문에 한국 피폭자야말로 진짜 피해자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6년도에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2세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기열 선생을 비롯한 한국인 피폭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원자폭탄을 사용한 미국의 진심어린 사죄이다. 이기열 선생은 정부가 이 일에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각계각층 시민들이 원폭 피해자들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으로부터 피폭자 수첩을 받은 한국 피폭자 중 살아계신 분의 숫자는 1,992명(2021년 말 기준)에 불과하고 부산과 경남에 많다. 한국 피폭자들은 핵무기의 참상을 존재로서 증명하는 분들이자 고난에 찬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분들의 짓밟힌 인권을 되살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한국 피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 이달의 기도 지향 :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핵발전과 생명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 토현성당 |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강력한 대지진이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했다. 규모 9.0 지진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를 축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였고 당시 지진으로 1만8천 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하면서 태평양 연안의 마을들을 덮쳤고 이때 후쿠시마 제1원전(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다량 누출되었다. 이 사고의 여파로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다. 12년이 지난 요즘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원전 오염수를 생명의 보고인 바다로 방류한다는 뉴스가 최근의 이슈 중 하나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신경전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각종 이슈들과 한 세트처럼 따라오는 주제는 바로 “핵”이다. 우리는 이 핵기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핵”과 관련된 단어에 있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류 역사의 크나큰 아픔인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핵무기의 기억이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원자력 발전이나 원자력 기술이라는 말 대신 있는 그대로 “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발전과 핵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108항 참조). 또한 핵분열의 연쇄 반응

을 폭주시키면 원자폭탄, 제어하면 원전이므로 반응 속도를 제외하면 물리적 과정은 다르지 않다. 핵발전의 과정에서 핵무기의 원료 물질을 생산한다. 핵발전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던 이른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보유할 수 있다. ‘원자력의 평화로운 이용’과 ‘핵의 군사적 전용’ 사이의 경계는 ‘원자력’과 ‘핵’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핵발전에 대해 핵의학과 달리 ‘평화적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군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핵 발전소는 ‘절대적 위험 시설’로서 적국에 괴멸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 공격의 핵심 목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록 하자.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가 유럽 최대 핵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이틀 연속 포격을 가했고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재앙의 실제 위험이 강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물며 원전은 일거에 흩어지는 원폭과 달리 장시간에 걸쳐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누적되고 있으므로 위험이 늘 내재되어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509항에서도 “대량 살상무기-핵무기-는 특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하느님과 온 인류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 핵무기 확산 방지 원칙과 핵군축, 핵

실험 금지 조치의 목적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적 차원의 효율적인 통제로써 되도록 신속히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자로 핵연료의 2차 폭발을 막기 위해 쏟아부었던 냉각수, 방사능으로 오염된 125만 톤에 이르는 물을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불리는 여과기를 통해 방사선 핵종을 거르고 지상에 보관해 왔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134·세슘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핵종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물질이 제대로 여과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도 삼중수소의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인 만큼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오염도가 줄었을 때 방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해양에 방출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명 우리는 핵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현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전기만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처럼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함께 생산하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160항의 질문에 깊이 숙고해야겠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협에 빠지게 하고 있다. 분명 당장 우리 세대의 에너지 보급 이슈도 중요하다. 그러나 핵기술을 통한 에너지 보급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집단 체면에서 눈을 떠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리스크가 적은 대체 에너지의 공급모델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동의 집인 지구의 모든 물질, 그 물질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다음 세대의 것을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빛나는 이성을 사용하여 눈부신 기술 문명을 이루어냈다. 핵기술 또한 그 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인간은 핵기술을 인류의 공동선(원자력을 이용한 치료와 처방 등 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기술의 무기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이라는 유혹에 늘 넘어진다. 생태적 회심이 절실한 이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역사적 정상회담 이후에 다가올 역사적 재앙

김종대 전 국회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식민과 냉전, 세계화의 시대를 거치며 동서냉전이 종식을 고하고 낮은 금리와 넘쳐나는 돈맛에 취한 황금시대를 살았다. 전쟁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민주주의 연대하자면서 일자리, 자본 약탈하는 미국의 모순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이 직면한 네 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첫째, 산업 공동화. 외주화 등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을 신봉한 결과 일자리 위기가 생겼다. 둘째, 지정학적 통합의 실패. 세계화 시대 국제무역 참여국들이 개방화될 줄 알았는데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셋째, 기후 위기는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넷째, 중산층 붕괴로 인한 불평등 심화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해결을 위해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처방은 이상하다. 전 지구적 문제로 공동협력해야 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국내적으론 중산층 재건, 국제적으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진영 외교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맹국을 약탈·압박해 자국 내 산업을 유지하고 금리를 연거푸 인상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회계 장부 및 기술 정보를 다 보는 미국의 국영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 또 양국의 금리 격차를 사상 최대치로 벌려 한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일자리와 자본 수탈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보니 진영 간 결속을 외치는 외교와는 정반대의 모순된 방향성이 표출됐다.

** 진영 논리로 적대 조장, 한국 정부는 임박한 파국론 내재화

이 모순을 은폐하는 방식이 편가르기, 적대와 혐오의 진영 논리로 두 개의 사고가 발견된다. 민주주의와 그 경계선 밖을 편가르고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안 한다'는 '민주평화론'과 '임박한 파국론'이다. 한동훈 장관이 출국길 들었다고 알려진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리스 문명과 민주주의 붕괴 역사를 다룬 이 책에는 도전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은유가 나온다.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의 충돌을 빚는다. 2027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보고서가 매주 쏟아지고 있다. 2027년은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파국론을 내재화한 한국 보수세력은 미중 충돌에 대비해 늦기 전에 이기는 편에 붙어

야 된다는 주술적 사고에 빠졌다. 하나의 메타포나 프레임으로 단순화하거나 몰입하게 되면 근본주의 사고에 빠지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이런 주술에 쉽게 넘어간다. 책의 말미엔 투키디데스의 경고가 나온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 통제와 약탈의 한미정상 공동선언

한국 정부는 주술에 빠져 폭주 중인데 작이를 전파한 미국은 판짓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물자에만 수출 통제를 국한하는 위험관리를 하고 나머지 무역은 중국과 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미중 무역액은 사상 최고 규모였다. 미국의 ‘탈위험’이 반도체, 배터리를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우리에겐 ‘탈중국’이 되고 만다. 특히 한미정상 공동선언은 통제와 약탈의 이중전략을 담고 있다. 한국은 핵확산 금지조약과 한미 원자력협정 준수를 서약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주권 확보를 주장해왔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 원자력 에너지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 재산권도 상호 존중한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원전 APR1400을 두고 미국회사가 자기네 원천기술이라고 소송을 건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5G,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킨다면서 미국이 설정해 놓은 ‘오픈랜’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도 짚어야 할 부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는데 미국은 통신망이 중국에 점령당하고 자신들은 도청할 수 없으니 앞서가는 한국 통신기술을

발목 잡았다. 더불어 반도체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 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봉쇄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반도체 제조 장비 제작국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올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은 게 연간 20억 달러를 수출하는 한국!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한국만 반사이익을 누리니 응하지 말고 중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 실익 없는 한미일 동맹으로 경제 위기 가속화, 안보 판도 흔들러

현 정부는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과 ‘한국형 핵공유’ 합의를 홍보했으나 차관보 회의가 전부인 ‘핵협의그룹’을 합의했을 뿐, 일본과는 해양 협력을 통해 군사 기밀을 대거 퍼주는 실무 협의 중이다. 한미일 동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받아들이면 국민 3분의 1은 갈 데가 없어진다. 중국 경제와 밀접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 왔는데 탈중국이 계속되면 위기가 곧 온다.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미국과 확장억지 협의 이후 한국의 안보관이 충돌할 상황에 놓였다. 북한은 작년 9월 예방적 핵사용을 정당화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다. 북한엔 핵무력의 프레임이 있고 남한은 미국과 확장억지 프레임을 협의했다. 북핵에 대한 예방전쟁의 개념을 담은 것으로 적대하는 두 지도자가 전쟁의 결기를 표방한 것. **한국가가 핵으로 무장하면 적을 막아낼 수 있으니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장 이후 재래식 분쟁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러니 양쪽의 충돌 시 위기는 미세한 데서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두 정권은 분쟁을 예방·통제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성숙돼 있지 않다. 때문에 한반도가 대만 해협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핫스팟이 돼가고 있다. 북한 핵이 위협인 건 엄연한 현실이지만 두렵다고 노예가 되면 핵무장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북한 핵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

2023년 5월 8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움켜진 손에 평화는 없다

최윤호 로마노 신부 서대신성당

손을 한번 움켜쥐어 보시라.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렇게 움켜쥐든 주먹이 보인다. 이 주먹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썄, 내 생각이 한정적일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를 때리고 부수는 것밖에는 떠오르질 않는다.

무언가를 손에 들고 꼭 쥐어보자. 조약돌이든 들꽃이든 막대사탕이든 총이나 칼이든 무언가를 손에 들고 움켜쥐어보자. 역시 주먹을 쥐게 된다. 물건의 크기에 따라 완전히 주먹이 쥐어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역시 아무래도 기본적인 손의 모양은 주먹을 움켜쥐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에 쥐는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펼쳐보자. 더 이상 주먹이 아닌, 이 펼쳐진 손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닌 누군가를 힘껏 안아줄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쓰다듬어도 주고 토닥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쥐는 것을 내려놓고 움켜쥐 손은 펴니 따스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행동을 많이도 할 수 있다.

움켜진 손을 펴는 것. 손을 펴면서 그 손에 쥐고 있던 것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 왜들 그리 잘 되지를 앓는지. 왜들 그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안달인지. 무얼 그리 대단한 것을 쥐고 있다고?

미국? 자신이 세계의 경찰, 세계의 맹주라는 허울 높은 자의식만 쥐고 있을 뿐.

중국? 예나 지금이나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별 필요도 없는 자부심만 쥐고 있을 뿐.

일본? 결국 패망하고 만 군국주의-악의 명령

만 붙들고 있을 뿐.

러시아? 전쟁을 통해 뭐라도 얻어야 하겠다는 부질없는 공명심만 쥐고 있을 뿐.

북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위협과 무력시위 밖에 모르는 멍청함만 쥐고 있을 뿐.

대한민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환상,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환상, 과거를 잘라낸 장밋빛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만 쥐고 있을 뿐. 뭐 다들 별 그리 대단한 걸 쥐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왜들 그리 움켜쥐는 것을 내려놓기를 주저하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주먹을 쥐는 채, 뭔가를 손에 움켜쥐는 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뒤에도 그러하다. 그분께서는 당신 손에 난 상처를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빵을 쥐고 계시지 않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누구에게든, 어떤 국가에게든, 손에 꼭 쥐는 것을 내려놓고 주먹을 풀지 않으면 평화라는 단어는 사전에만 등재된 단어가 될 것이다. 🌿



싸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

「핵소 고지」, 감독 멜 깁슨

전동욱 안드레아 신부 일본선교

주인공 데스몬드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알코올중독에 빠져 동네에선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술 김에 어머니를 총으로 쏘려던 아버지를 말리던 데스몬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총으로 죽이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되고, 어린 시절 동생을 실수로 죽일뻔한 사건과 합쳐져서 이 일은 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데스몬드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동네에서 평범하고 좋은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군대에 자원하게 됩니다.

평소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신념에 따라 위생병으로 지원했지만 전장의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총을 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는 동료 병사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합니다. 또 상부에 불려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게 되고, 휴가를 빼앗겨서 자신의 결혼식조차도 못 가는 일이 있었지요. 급기야 정신병원에 송치되고 군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전쟁터에 나가보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이 아닌 아군에게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섬, 핵소 고지에 총을 들지 않고 위생병으로 참여하게 된 데스몬드는 전쟁

의 참혹함을 마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순간에 포화 속에서 살려달라는 동료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신께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밤새 홀로 부상병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날 밤, 그가 구해낸 병사는 75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는 최초로 훈장까지 받은 그의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이 핵소 고지라는 영화입니다.

얼마 전 G7 정상회담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습니다. 히로시마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아픈 상처를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자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합니다. 데스몬드가 총을 들지 않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온갖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싸우지 않기 위해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핵도 없고 전쟁도 없는 세상.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



무장해제와 평화 : 테르툴리아누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최초의 원자폭탄이 1945년 8월 히로시마(6일)와 나가사키(9일)에 투하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었다. 핵무기의 가공할 힘을 직접 목격한 강대국들은 그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핵무기 사용억제를 전제로 한 ‘위장평화’를 목적으로 앞다투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노력하였다. 불행하게도 ‘공포의 균형’이라는 노력의 결과, 지금도 세상 종말의 날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극히 우려스럽다.

두 번의 세계대전의 참상을 직접 경험했던 비오 12세 교황은 “평화는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라며 라디오 담화(1939년 8월 24일)를 통해 ‘전쟁의 절대 위험성’을 경고했다.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 자국민을 정당방어하면서 침해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현대의 전쟁은 피아(彼我)를 식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고통과 파괴를 가져왔음을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요한 23세는 ‘전쟁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며, 평화를 위해서 인류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를 반포했다. 교황은 정당한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원자력을 자랑하는 현대에서는 전쟁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라며, 현대의 전쟁은 핵무기의 등장으로 이미 문제해결능력을 벗어났음을 우려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전쟁은 비참 말고는 그 무엇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무기는 죽음 말고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2019년 2월 4일 아랍에미리트 연설)라며 ‘전쟁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무기 없는 세상의 평화’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철한 평화주의 사상을 지녔던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60경-220이후)의 가르침을 상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는 『호교론』Apologeticum에서 ‘전쟁의 불가피성’과 ‘전쟁의 기능적인 측면’을 언급할 때마다 그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하였다. 즉, “전쟁은 승리할 경우에도 항상 파괴와 타락을 수반하며, 그 파괴는 일반 가정과 신전, 군인과 민간인과 성직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피정복민들의 종교를 파멸시켰고, 그 결과 자신들의 종교마저 파멸시켜 버렸다.”(『호교론』, 25)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테르툴리아누스는 “누가 칼을 가지고 진실과 온유와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전쟁의 통례적인 임무는 온유와 정의에 반대되는 속임과 사나움과 불의가 아닌가?”(『마르키온 반박』Adversus Marcionem, 4,14.)라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 18,11)하신 것은 모든 병사의 무장해제를 명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우상숭배』De idololatria, 19.)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전쟁하는 일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전쟁에 뛰어난 분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신 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마르키온 반박』, 4,21.)라며, 싸우기보다 차라리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최초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테르툴리아누스는 거룩한 평화와 정당한 평화를 위해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주장한 최초의 교부로 기억된다. 🌿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창세 15,5)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2040-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한 195개 국가는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야 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오히려 뒤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세우고, 신규 핵 발전소를 건설하며,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 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더욱 우려됩니다. 제주 제2공항과 새만금 공항 등 신공항 건설 계획,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허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계를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게 되면 당장의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으로도 복구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생태적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오염수를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에 바다에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ALPS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오염수가 전체의 약 70%나 되고,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전혀 처리하지 못합니다. 태평양 전체에 방사능 오염이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

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2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33년 만에 지구의 오존층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0.5-1°C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해마다 200만 명이 피부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류가 환경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살 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찬미받으소서’, 160항).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고 보호하며 인류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 세상은 현재의 인류가 미래의 인류를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류를 축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바로 행동합시다. 🌿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 현 동 아빠스



전문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5월 아세미는 5월 8일(월/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적 한미정상회담 이후 다가올 한미, 한중 간의 무역과 경제,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 안보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면] 아세미 이야기를 참고해주시고, 아세미에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에서 사회교리학교 주제강좌 『모든 형제들』(교황 프란치스코 회칙)을 통해서 찾아보는 “더 나은 정치와 사회”를 주제로 3주간(목/19:00) 진행하였습니다. 첫날 사회교리 문헌들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위한 정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2강 ‘교회의 시각으로 바라본 자유와 민주주의’를, 3강 ‘정치와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를 박동호 신부(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의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리학교는 입문강좌로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8주간 수요일)까지 저녁 7시, 가톨릭센터 교육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경동건설 故 정순규 미카엘 형제 사망사고 사문서위조 고발 기자회견

5월 15일(월/14:00), 유가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부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내내 고인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위조·행사한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사실을 알리고, 사측의 은폐와 사실 왜곡에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 ‘미국 핵미사일 잠수함’ 부산기항 규탄 부산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

5월 19일(금/11:00), 부산에 미 핵미사일 잠수함이 기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활동가들이 남구 백운포 주한 미 해군사령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며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중국과 북한의 핵전쟁 위기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에 대한 부산시민사회 기자회견

5월 22일(11:30) 부산시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방문 및 오염수 방류 지지 G7 공동성명’에 대한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사와 검증 없이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오염수 처리과정만 보고 돌아오는 시찰단, 시찰단 명단의 비공개는 객관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핵 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IAEA 검증을 지지한다는 G7은 사실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손을 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어민의 생존권,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미카엘 형제’ 빈소 조문

5월 23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와 총무 이영훈 신부(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산화한 ‘고 양회동 미카엘 형제’의 빈소(서울대병원)를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며, 교회가 형제적 연대로 함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 18일 ~ 2023년 5월 15일)

강운자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권용대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서현 김선영 김민한신부 김중경 김진우신부 김진호신부 김홍기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밀알사제단 박위옥 박종민신부 박준철 법무법인민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윤호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덕선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수련 최우인 최재경 최정은 최혁신부 하민진 하희설 황수엽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고은영 김진호신부 김현신부 김희영 이상경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시요.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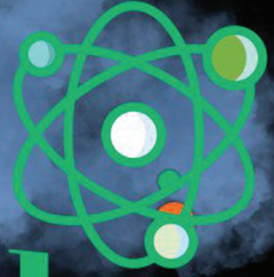
- 농협 301-0465-9508-21
-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업비로 사용되며,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이나 신규로 후원하신 분은 꼭 연락해주시요. ☎ 051-465-950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성리 평화 미사’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4시 미사
장 소: 소성리 천주교상항실
출 발: 사상기차역 앞 09:50까지 집결
승합차 이동(10:00~18:30)
참 가 비: 무료(점심 개인 부담)
신청 마감: 6월12일까지 선착순
문 의: 정의평화위원회 051-465-9508

2023 6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어떻게 막을 것인가?

23.06.12.(월)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강사 김해창 교수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노후핵발전소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저지 및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